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인천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김 현 전화 032-860-4340	보 도 자 료 2022. 9. 13.(화)

제목	인천지검, 나태주 시인과 함께 하는 「인권 감수성 훈련」 실시 - 2022. 9. 16.(금) 나태주 시인 초청 특별강연 예정 -

❑ 인천지검(검사장 심우정)은 지식 뿐만 아니라 감성 등 인권에 대한 다양한 접근 필요성에 주목하여, **나태주 시인과 함께** 인권 감수성 훈련 교재 「**풀꽃이 인권이다**」를 자체 제작·배포하는 등 **단계별 인권 감수성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1단계는 '**나태주 시읽기를 통한 인권 감수성 훈련**'으로, 참여 희망 직원에게 교재를 배포하고 인권보호관과 함께 시읽기를 통해 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 2단계는 '**나태주 시인과 함께 하는 인권 감수성 훈련**'으로, 2022. 9. 16.(금) 인천지검 대강당에서 **나태주 시인 초청 특별 강연회**를 실시하여 시인과 대화하며 교감하고, △ 3단계는 '**글쓰기를 통한 인권 감수성 훈련**'으로, 글쓰기로 인권 의식을 내면화하고 **출판을 지원**하여 조직 구성원의 잠재역량을 계발하는 것입니다.

❑ 나아가 나태주 시인과 함께 「**풀꽃 시화(詩畫) 사진**」을 제작하여 민원실·구치감 등에 게시하고, 「**풀꽃 시화(詩畫) 프리젠테이션**」을 제작·상영하여 청사 인권·문화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인천지검은 **인권 친화적인 검찰문화**를 조성하고 검찰 업무의 모든 영역에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태주

1945년 충남 서천에서 태어났다. 공주사범학교(현 공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43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으며, 2007년 공주 장기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임했다.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어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첫 시집 『대숲 아래서』를 출간한 후 『풀꽃』『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꽃을 보듯 너를 본다』등 여러 권의 시집을 펴냈고, 산문집 그림시집 동화집 등 150여 권을 출간했다. 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담은 시 「풀꽃」을 발표해 '풀꽃시인'이라는 애칭과 함께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소월시문학상, 흙의문학상, 충청남도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2014년부터는 공주에서 '풀꽃문학관'을 설립·운영하며 풀꽃문학상을 제정·시상하고 있다.

- 시집『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나태주, 열림원, 2022) 중 시인 소개문 -

1 단계별 인권 감수성 훈련

○ **1단계('22. 7. 18.~) : 나태주 시읽기를 통한 인권 감수성[1] 훈련**

- 훈련 교재「**풀꽃이 인권이다**」자체 제작, 훈련 신청자에게 배포
- 인권보호관이 신청자들과 함께 시읽기를 통해 인권 감수성 훈련 (2022. 9. 8. 현재 109명 참여)

※ 문학작품, 특히 시는 섬세한 감성을 다루는 것으로 시인의 시적 대상에 대한 접근방식, 삶에 대한 태도 등을 통해 감수성 훈련 가능

○ **2단계('22. 9. 16.) : 나태주 시인과 함께 하는 인권 감수성 훈련**

- 9. 16.(금) 15:00 대강당에서 「**나태주 시인 초청 특강**」 실시
- 특별강연, 사인회 '시인과의 대화' 예정

1)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에 대하여 매우 작은 요소에서도 인권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적용하면서, 인권을 고려하는 것(국가인권위원회, 『인권용어사전』)

○ **3단계('22. 9.~11.) : 글쓰기를 통한 인권 감수성 훈련**

- 희망자에 한해 인권 관련 글쓰기(시, 수필 등 자유) 실시

- 「**인천지검 사람들의 인권 이야기**」(가제) 출판 지원 예정

2 인권 감수성 훈련 교재 『풀꽃이 인권이다』 제작 · 배포

○ 나태주 시인의 시(20편 수록)와 글과 말을 **풀꽃과 인권의 관점**에서 인천지검 인권보호관이 엮어 자체 제작

인권 감수성 훈련 교재(표지)

○ **목차**

시인의 말 / 엮은이의 말(인권 감수성 훈련 핸드북을 펴내며) /

풀꽃이 인권이다 / 시를 읽다 / 풀꽃문학관에 가다 /

검사가 묻고 시인이 답하다

○ **시인의 말**

"작은 것, 버림받은 것, 오래된 것, 값이 비싸지 않은 것, 주변에 있는 흔한 것, 낡은 것들을 총칭하는 의미로서의 풀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인권과는 너무나도 가까운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강자와 부자와 능력자들만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소외되고 힘이 없고 낮은 사람들은 모두가 풀꽃과 같은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완전히 순결할 수 없고 완전히 정의로울 수 없고 완전히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제각기 어느 만큼은 결함을 지니고 있는 불완전자들이지요. 그러기에 상호간 보완이 있어야 하고 상호간 이해와 겸손과 용서가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법은 인간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의지처입니다. 법이 제대로 서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힘드시고 고달프실 것입니다. 어깨가 무겁기도 할 것입니다. 잘 참으시고 자신들이 하시는 일이 이 세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스스로 아끼시고 존중하시고 그러면서도 부드럽고 따스한 마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법이 있고 검찰공무원들이 계시니까 스트레스가 많을 수도 있고 그런 영향으로 딱딱해지거나 냉정해질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 십분 감안하여 자신들을 다독이시고 성찰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세상의 신뢰와 존경이 함께 할 것으로 믿습니다."

나태주, 「검사가 묻고 시인이 답하다」 중에서

3 풀꽃 시화(詩畫) 사진 및 프레젠테이션 제작 · 게시

○ 인권 감수성 훈련의 확장 차원에서 나태주 시인과 함께 「**풀꽃 시화(詩畫) 사진**」을 제작하여 민원실 · 구치감 등에 게시하고, 「**풀꽃 시화(詩畫) 프리젠테이션**」을 제작 · 상영하여 청사 **인권 · 문화환경 개선** ▨

시화 사진 (구치감 복도)

시화 액자 (형사조정 대기실)

시화 프리젠테이션 동영상 (민원실)